







'사랑나눔 콘서트' 1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東京 고향의 집 개관 3주년 빛고을 후원 음악회 열린다

일본 '고향의 집'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재일한국인들이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 양로원이다. 재일한국인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지 13일 만에 고독사로 발견된 것이 계기가 돼 30년 전인 1989년 문을 열었다. 오사카 사카이에서 시작한 '고향의 집'은 오사카, 고베, 교토, 동경 등 현재는 5곳으로 늘어났다. 개관 3주년을 맞은 일본 동경 '고향의 집' 후원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매일신문과 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는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일제 강제징용 재일한국인 양로원 돕기 '사랑나눔 콘서트'를 마련한다. 행사는 광주시·광주매일신문·광주예총이 주최하고 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사)·공생복지재단·일본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이 주관한다.

일본 동경 '고향의 집'에는 현재 30여명의 재일한국인들이 머무르고 있다. 개관 3주년이 됐지만 아직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다. 이에 김미옥 소프라노를 필두로 광주지역의 음악가들이 힘을 모아 '고향의 집'을 돕기 위한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는 메조소프라노 강양은, 소프라노 김미옥, 테너 윤병길, 바리톤 방대진 등 유명 성악가 15여명이 출연한다.

이날 콘서트 이후 음악가들은 오는 7월 5-6일 일본에서도 순회공연을 갖는다. 5일은 일본 동경 고향의 집에서, 6일은 일본 동경 요도바시 교회에서 '사랑나눔 콘서트'를 연다.

또한 '고향의 집'이 1989년 개관한 후 올해 30주년을 맞는 만큼 오는 11월 6일에는 일본에서 기념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관계자와 음악가 등을 비롯, 300-400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이 날 연극 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고향의 집은 국경을 넘은 인간애의 산물이며, 그런 인간애의 현상이기도 하다"며 "오래전부터 '고향의 집'을 응원해 온 사람으로서 멀리서나마 마음의 후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사랑나눔 콘서트'를 총괄기획한 김미옥 소프라노는 "일본 '고향의 집' 홍보대사로서 25년 넘게 일하면서 같은 동포로서 재일한국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이같은 콘서트를 열게 됐다"며 "재일한국인들에게 잊혀져 가는 고향의 말로 노래도 불러드리며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고, 한·일 민간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켓은 VIP석 10만원, R석 5만원. (문의 010-4032-7629) /정겨울기자







나를 둘러싼 일상 속 생명체들에 대한 탐구

유·스퀘어 청년작가 이소명 개인전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소명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8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3관에서 열린다.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 석사와 백석대 미술학 박사를 졸업한 이소명 작가는 졸업 후에도 꾸준히 자신만의 작품을 그려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이다.

전시는 '인프라-라이프리스'(infra-lifeless)라는 주제로 평면회화, 드로잉, 사진, 비디오 등의 다채로운 표현 방식으로 전시관에서 작품으로 마주한다.

전시를 이루는 작품들의 장르는 차별적이지만 작품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일관성이 있게 생명의 모습에 대한 탐구를 작가만의 방법으로 연구한 과정을 표현했다.

무심히 바라보는 창밖의 풍경에서, 숲속의 밤공기와 희석되는 바람결에서, 길을 지나며 만나는 정원의 식물들에서 작가는 생명의 원형을 이루는 순수한 형상을 발견하고 이를 화지에 옮겨 작품화 했다. 작품에는 작가가 순수하고 진지한 눈

이소명 작 'The Prototype of Creation 5' (Intimacy 1)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제공

빛으로 바라본 기억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작가는 "예술의 이름으로 자신과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생명체들을 조명하는 작가의 작품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특별한 의미의 시간으로 다가온다"며 "관람객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작품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문의 062-360-8436) /정겨울 기자

남도의 아름다운 기억 사진으로 담아주세요

전남문화관광재단, 10월 18일까지 관광사진 공모전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019 전라남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오는 10월 18일까지 진행한다. 공모전은 전남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여행의 추억을 이야기로 담은 우수한 관광사진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다.

올해는 '전라남도, 기억을 잇다'를 주제로 해 전남의 관광명소나 관광시설, 숨겨진 명소 등의 이야기와 감동을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

오는 10월 18일까지 접수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월 이후 전남지역에서 촬영한 작품이면 거주지나 연령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단, 다른 공모전의 당선작품과 유사하지 않은 미발표 작품이어야 하고, 1인당 5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총 5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되며, 수상자에게는 금상(1명) 400만원, 은상(2명) 각 150만원, 동상(3명) 각 50만원 등의 상금이 수여된다.

2018년 금상 수상작 박윤준 작가 '간절한 염원' (화순 운주사) /전남문화관광재단 제공

참여는 공모기간 중 참가신청서와 사진파일을 온라인 (inpictures@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전시회를 비롯해 전남 관광 홍보자료 제작과 각종 행사에 활용되며, 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관광공사 사진 게시판, 남도여행길잡이 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www.jeonnm.go.kr) 또는 전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www.jact.or.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61-980-5864)

/정겨울 기자

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는?

일제 강제징용 재일한국인 양로원 돕기 '사랑나눔 콘서트'에 참여하는 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는 김미옥 소프라노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현재 20여명의 성악

가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지난 1월 창단했으며, 오는 11월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사랑나눔 콘서트'가 창단 첫 음악회다. 이날 음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일본에서 열리는 두 차례 순회공연에도 참여한다. 김미옥 소프라노는 "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는 '사랑나눔 콘서트'를 기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후배 성악가들이 더욱 자

주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 단체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한편, 펠리체 솔리스트 성악회는 광주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월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에게 재능기부 음악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겨울 기자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달팽이 사육장(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급 월 270만원 예상

(+1층 농장 임대비)

땅 + 건물 + 태양광

(선로 걱정 없는 한국형)

**2년 6개월이면
현금 투자 회수 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면 잔여분 3기
- 2019년 10월 준공 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센스톡 통역기

내 스마트폰에 통역칩을 쏘~옥!

해외여행, 출장시 누구나 쉽게 사용할수 있는 다국어 통역 **센스톡 (16개 국어 양방향 통역(번역))**

"인터넷, 와이파이, 데이터 요금없이 양방향 동시통역!"

외국어 전혀 몰라도 외국인과의 대화가 술술~ 세계인과 통역하자(내손안의 통역비서)

최신 신제품 32GB

최신 신제품 32GB

최신 신제품 16GB

특별행사

센스톡 구매시

히든케어

허리보호벨트 (특허 제10-1392404호)

45,000원 상당 증정

본점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24번지 임동오거리
Tel. 062-522-2000

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 54 금호월드1층139호(정문입구)
Tel. 062-350-8397

CMYK